

道 “남북협력 이젠 지방정부가 주도” 국제평화센터 추진

이재강 평화부지사 토크쇼서 제시
국제기구 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

경기도가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확보하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2020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평화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부지사는 “기존 중앙정부 위주의 남북협력은 여러 정치·외교·군사적 이유로 채널이 막힐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까지 모두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 주도로 평화의 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때”라며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관련국 지방정부 및 국제평화NGO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통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대화와 교류의 테이블을 만들어 다자주의적 평화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협력을 추진하려는 경기국

제평화센터”는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평화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만드는 데 힘쓰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제평화교류사업의 기획 및 추진은 물론,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시막화방지 조림, DMZ국제행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평화분야 국제협력사업들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이날 토크쇼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에 후지에 공감했다.

김강식 도의원은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기획과 홍보 기능까지 갖춰 평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호 도의원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관계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큰 단위의 부서나 하나의 재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화숙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국제 문제와 연동돼 복잡하고 쉽게 풀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풀어야 한다”며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중앙정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영성기자

남북교류 이끈 ‘국제평화센터’ 설립 道 주도 평화 외교 多者협력망 구축

이재강 평화부지사 청사진 공개

경기도가 국제평화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본보 6월 24일자 1면 보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이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21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2020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평화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 주도의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정부 위주의 남북 협력은 여러 정치·외교·군사적 이유로 채널이 막히면 지자체 차원의 사업까지 모두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평화외교

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국제평화센터는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평화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협력망을 구축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평화교류사업의 기획 및 추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시막화 방지 조림, DMZ 국제행사 등 도가 추진하는 각종 평화분야 국제협력사업들도 총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 평화협력국내 과(課) 단위(12명 규모)의 전담부서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관련국 지방정부 및 국제평화 NGO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통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대화와 교류의 테이블을 만들어 다자주의적 평화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강 지사는 지난 17일 DMZ 포럼을 통해 ▶남북 공동 방역 및 의료 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침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 복원 및 농촌 종합개발 ▶대북 수해 복구 지원 등 5가지 사업을 북측에 제안하며 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시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llbo.co.kr
임하연 기자 lhy@kihollbo.co.kr

도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 추진

이재강 평화부지사, 정책 토크쇼서 밝히
"남북·국제사회 대화 테이블로 만들겠다"

경기도가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국제 협력 기관이다.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1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2020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평화 외교역량 강화 정책토크쇼'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위주의 남북 협력은 정치·외교 문제로 소동 창구가 막히면 지방정부 사업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평화 외교를 추진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 현안이다. 그런 만큼 관련 국가의 지방정부와 국제평화 NGO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해 남북과 국제사회가 대화하는 테이블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발판 삼아 다자주의적 평화 협력의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강식 도의원은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를 풀을 시기다"라며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욱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반도 문제는 국제 문제와 얽혀 쉽게 풀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다양한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제평화센터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길 바란다"고

도가 설립할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주변국과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와 국내의 평화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국제평화 교류 사업 기획·추진과 국제 개발 협력(ODA) 사업, 사막화 방지 조림과 DMZ 국제행사를 총괄한다.

▶한반도 기자 hss@incheonilbo.com